

2023

05.10

CERIK 시장동향

2023년 5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 매매시장	2
○ 임대차시장	5
○ 공급	6
○ 수요	9
○ 금융	10
○ 부동산산업	11
○ 통계요약표	12



CERIK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

- 가격 하락세 2개월 연속 감소, 지역별 거래량 20% 내지 30% 증가 등 지표 상 경기 침체 완화
- 미분양 주택 7만 2,104호로 11개월만에 첫 감소 및 18개월만에 가장 적은 감소폭 기록
-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거래량 전월과 큰 차이 없이 유지

- ◎ **(매매)** 4월 매매가격 하락폭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개선, 다만 상승세로 돌아서지는 않아
 - 일부 지역과 상품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 및 분석이 등장했으나 전반적인 시장 침체 분위기를 전환하는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당초 조사됐던 3월 지방 아파트 가격의 하락 폭이 0.38%였는데 반해 이번 달 낙폭이 0.41%로 집계되었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시사점 도출 가능
 - 거래는 전국적으로 증가세나 세종, 전남 지역만 감소함. 당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 발표로 인해 매도자의 판매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거래량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에서는 일종의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듯
- ◎ **(임대차)** 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유사하게 월간 하락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움직여
 - 지역별로는 수도권 0.94%, 지방 0.77% 하락해 여전히 수도권의 낙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으나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의 골이 더 깊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복력은 수도권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돼
 - 정부의 전세 제도 개선 의지(5.17. 언급) 등을 고려할 때 월세로의 이전이 가속화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전세가 우리 시장에서 갖는 기능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전세 제도의 종말을 논하기에는 일러... 금융 규제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뒷받침 돼야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있을 듯
- ◎ **(공급)** 전국에서 지방광역시 민간 부문 주택 인허가만 증가세 기록(9.4%), 지난해 기저효과 커
 - 특히 지방광역시 민간 부문의 인허가 물량 증가세는, 현재 시장 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해 지속해서 미뤄왔던 사업들의 인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
 -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의 감소폭이 큰데, 지난해 3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이 9,395호 수준이었던데 반해 금년 3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74.0% 감소한 2,442호 수준에 불과
- ◎ **(산업)** 업황 기준 BSI는 상승세나 경기 개선을 속단하기 어렵고 월간 창업기업의 수 역시 쉽게 회복세 보이지 않아
 - 정부에서 법인 사업자에 가해왔던 여러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법인 창업 추이에 영향력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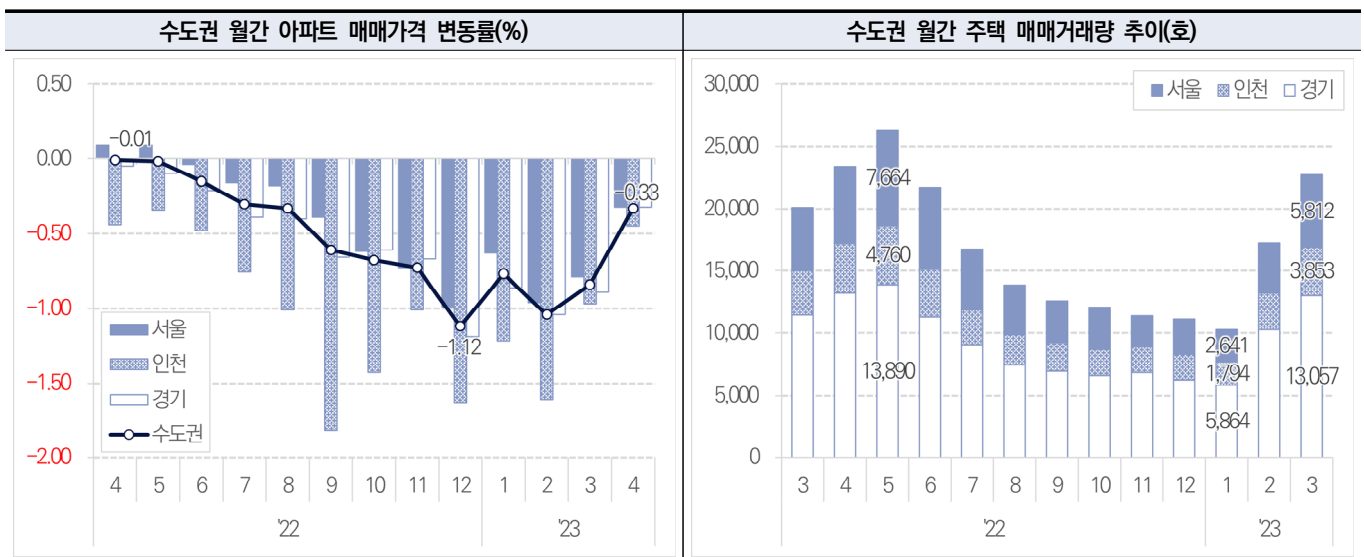
매매시장

1_수도권(서울·인천·경기)

- 4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난달 대비 낙폭을 0.50%p 줄인 0.33% 하락
- 3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2,722호로 집계돼 전월 대비 31.8% 증가

- ◎ (가격) 4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서울·경기 각각 0.32%, 인천 0.45% 하락해 수도권 종합 0.33% 하락
 - 인천 지역의 가격 낙폭 개선 속도가 다른 두 지역(서울·경기) 대비 더딘 편임. 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간 누적 하락률이 12.03%를 기록해 타 지역 대비 높아
 - 연 누적 아파트 가격 하락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는 각각 2%대, 3%대 하락을 기록한 데 반해 인천 지역은 4.19% 하락
 - 당초 서울 3월 아파트 가격은 0.54%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2월 대비 큰 폭의 개선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거래 사례 등 자료의 추가 수집 결과 0.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 ◎ (거래) 3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MoM 31.8%, YoY 13.0% 증가해 9개월 만에 월 2만 호 수준 회복
 - 지역을 가리지 않고 MoM·YoY 거래량 증가 추세로, 서울 MoM 거래량 증가폭이 세 지역 중에서는 가장 큰 46.2% 기록
 - 지역별 가격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지역별 매매거래량 구성비가 특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과 달리 예년과 유사한 서울:인천:경기=25.6%:17.0%:57.5% 수준을 나타내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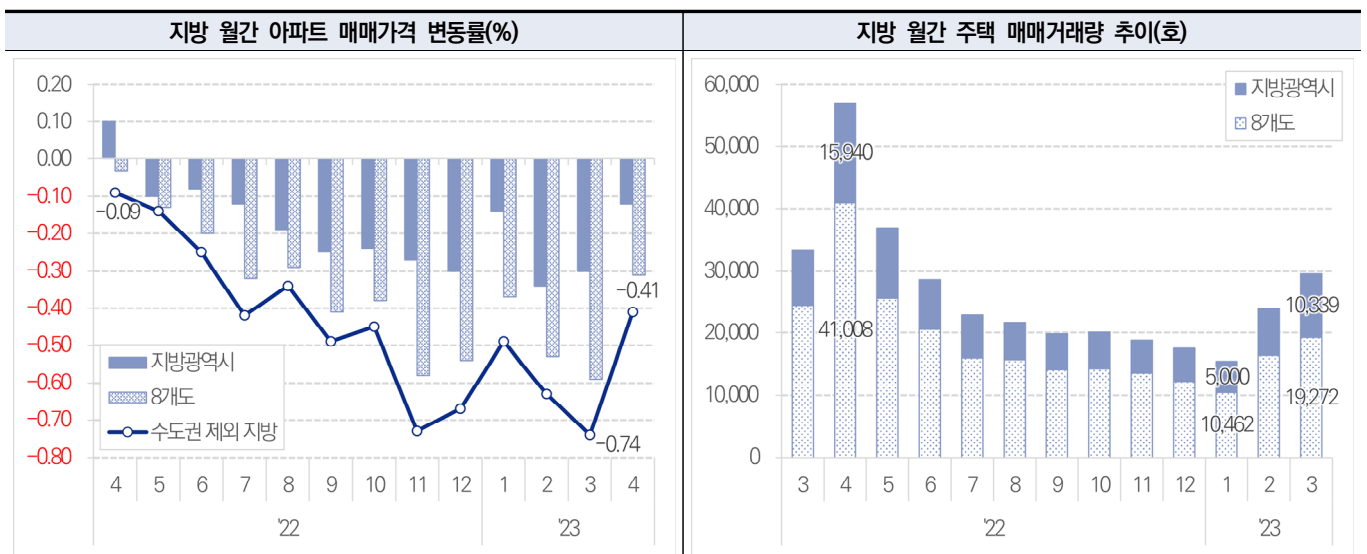
매매시장

2_지방(지방광역시·8개 도)

- 4월 지방 아파트 가격, 0.41% 하락하며 지난달 낙폭인 0.74%에 비해 다소 개선
- 3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도 3.0만호에 육박해 MoM, YoY 모두 20% 이상 증가

- ◎ (가격) 4월 지역별 3월 대비 4월 아파트 가격의 낙폭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
 - 그 결과 지방광역시 -0.30% ^(3월) → -0.12% ^(4월) / 8개도 -0.59% ^(3월) → -0.31% ^(4월)로 낙폭 감소
 - 지방광역시 중 월간 가격 하락이 가장 심했던 지역은 대전 대덕구(1.18%)로 2021년 한때 월간 3%대 상승을 보이는 등 상승 압력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가 지속돼
 - 반면 상승세를 보인 지역도 있음. 충청 부여군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며 눈에 띄었지만 직전 12개월 동안 거래가 없어 변화율이 0%로 기록된 데서 큰 상승 폭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
 - 하지만 당초 조사됐던 3월 지방 아파트 가격의 하락 폭이 0.38%였는데 반해 이번 달 낙폭이 0.41%로 집계되면서 지방 시장의 회복 속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 제기
- ◎ (거래)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량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6.8%)과 전남 지역(15.6%)만 MoM 거래량 감소
 -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37.3%)와 8개도(17.4%)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거래량 증가세 기록
 - 당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유예 정책 발표로 인해 매도자의 판매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거래량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에서는 일말의 불확실성 해소에 받아들인 듯

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주 :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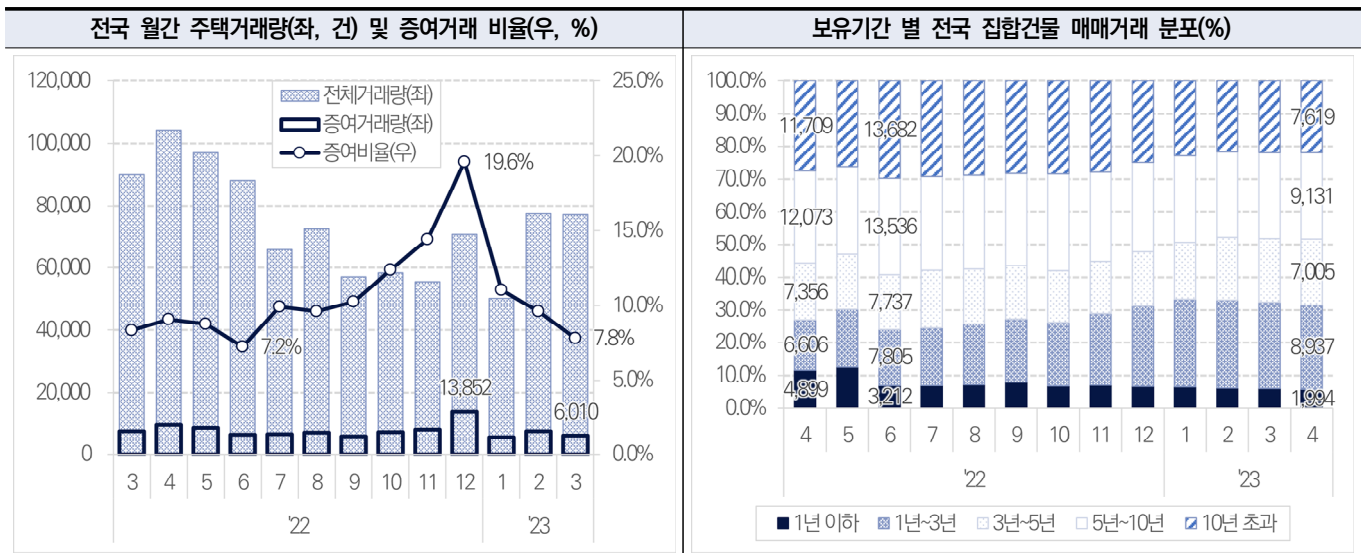
매매시장

3_거래속성

- 월간 주택거래량 대비 증여거래 비율, 지난해 한때 20%에 육박했으나 다시 10% 미만으로 회귀
- 부동산 매도인 중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매매거래 비중 50% 초과... 수익 실현인가? 버티기 실패인가?

- ◎ **(거래유형)** 전체 거래 중 증여거래량 7.8%로 여전히 평년 수준¹⁾보다는 많지만 지난해 평균 10.9%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
 - 2023년 초부터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속과 증여를 이연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
- ◎ **(보유기간)** 2023년 들어 5년 미만 보유자의 거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돼
 - 지난해 하반기 10년 초과 보유자들의 거래 비중이 30%를 넘었던 것과는 반대로 2023년 들어 10년 초과 보유자들의 거래 비중은 20% 선에서 지속 감소하는 추세
 - 2023년 기준 5년 미만 보유자들은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18년 이후 매입자들로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매도인지, 아니면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불가피한 매도인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를 해석하는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



※ 주 : '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8%로(동 기준; 경기도, 2020),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분석함.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법원 등기정보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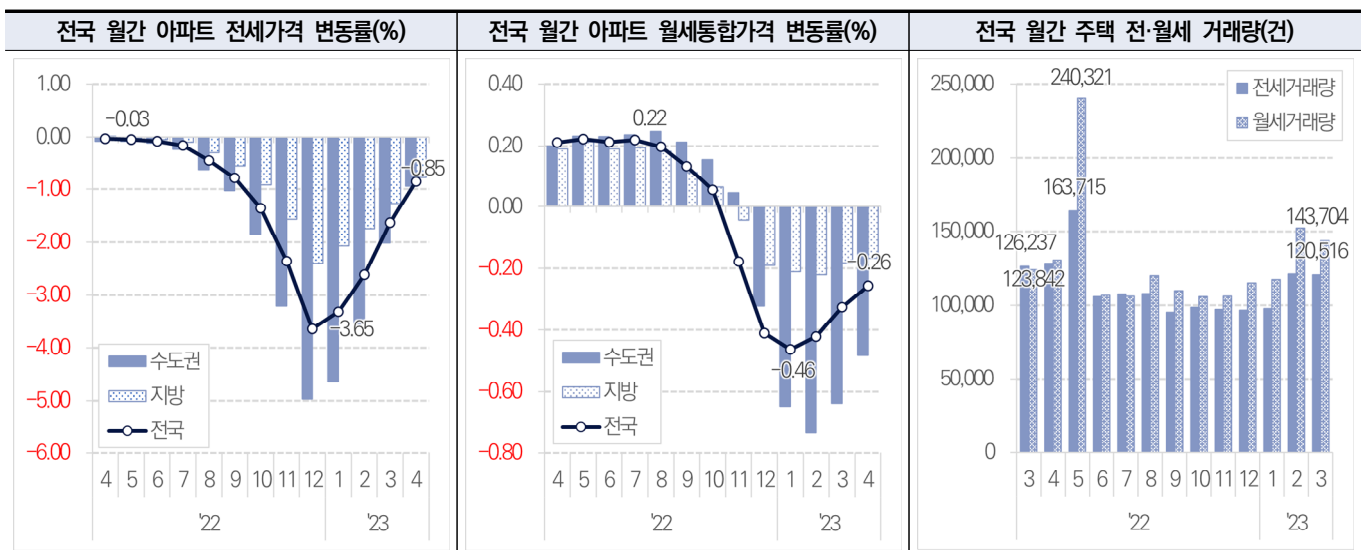
1) 최근 10년(2013년~2022년) 월간 부동산거래 중 증여거래의 평균 비율은 6.4% 수준임.

임대차시장

-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MoM 0.85% 하락, 지난해 12월 월간 3.65% 하락한 이후 4개월째 낙폭 둔화
- 3월 전세 거래량 12.1만 건, 월세 거래량 14.4만 건으로 각각 MoM 1.1%와 1.9% 증가해 큰 차이 없어

- ◎ **(전세)** 전국 아파트 전세가, MoM 0.85% 하락해 전년 4분기 이후 낙폭 최저... 7개월 만에 월간 1% 미만 하락 기록
 - 지역별로는 수도권 0.94%, 지방 0.77% 하락해 여전히 수도권의 낙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으나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의 골이 더 깊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복력은 수도권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돼
 -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등 가격 하방 요인 상존하나 특정 상품(다가구·다세대·연립·오피스텔·나홀로 아파트)에 집중되는 경향 보여 전반적인 가격에 큰 영향 주지 못한 듯
 - 전세거래량은 봄 이사철을 맞아 3월과 4월 공히 12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기존 패턴을 볼 때 5월까지 는 소폭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월세)** 전국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²⁾은 4월 0.25% 하락해 지난 1월 월간 낙폭 대비 0.20%p 개선돼
 - 4월 월간 전국 아파트 월세통합가격 하락폭은 0.25%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35%,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0.17% 하락
 - 지난 1월 대비 낙폭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 월간 하락폭 기록

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



※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 '월세통합지수'란 월세, 준월세,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 이하 동일함.

공급

1_인허가

- 지방광역시 민간 부문 주택 인허가, 전년 누적 대비 9.4% 증가해 지역별·부문별 집계 상 유일한 증가세... 기저효과 커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3월까지 아파트 인허가 누적 감소 폭 7.6%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

◎ (주택) 전국 주택 인허가, 전년 누적 대비 23.0% 감소한 8.6만 호

- 지난해 3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10만 호를 초과했으나 올해 누적치는 이에 못 미치는 8만 6,444호
- 특히 공공부문의 인허가 감소 폭이 민간부문보다 큰데, 전국 기준 74.0% 감소한 2,442호에 불과

◎ (APT)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전년 대비 연누계 증감률 격차가 감소하는 추이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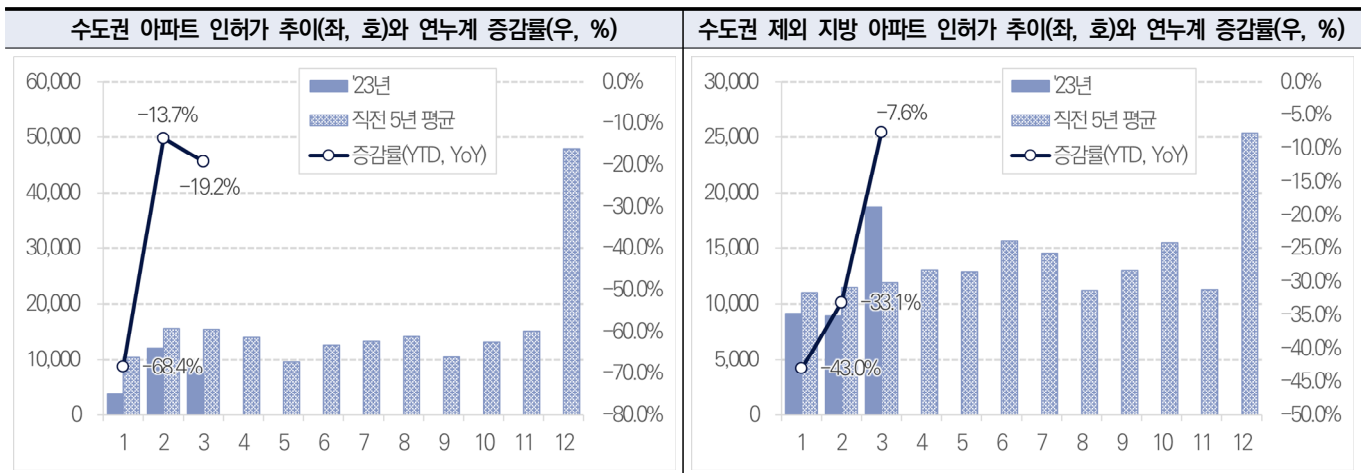
- 다만 이러한 추세는 현재 전반적인 사업 환경 및 자금조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지속해서 미뤄 왔던 사업의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

주택 인허가 현황(YTD)

인허가 현황 (호, %)	지역별 합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전국	수도권	지방 광역시	8개도
2022년 1~3월	112,282	42,947	20,742	48,593	9,395	5,062	2192	2,141	102,887	37,885	18,550	46,452
2023년 1~3월	86,444	30,253	20,989	35,202	2,442	1,263	687	492	84,002	28,990	20,302	34,710
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	-23.0%	-29.6%	1.2%	-27.6%	-74.0%	-75.0%	-68.7%	-77.0%	-18.4%	-23.5%	9.4%	-25.3%

※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인허가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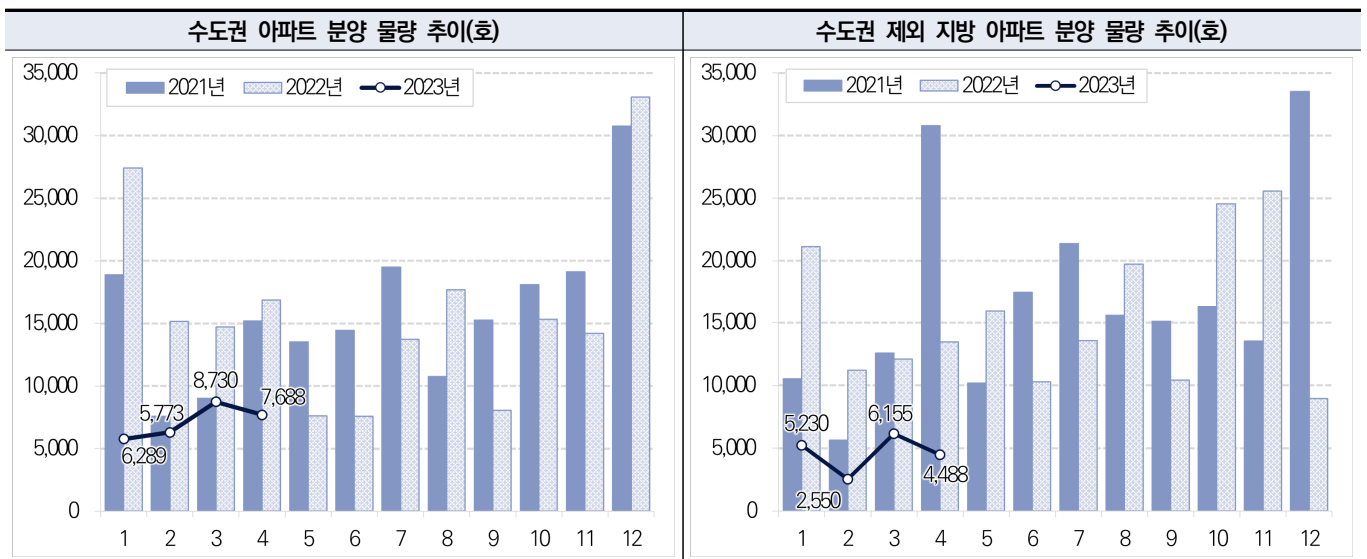
공급

2_분양

- 4월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18.2% 감소한 1만 2,176호 수준으로 집계돼 당초 분양 계획 조사(7.5천 호) 대비 크게 증가
- 5월 분양 계획물량은 약 2.7만호로 집계됐으나 혼란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계획과 실제 분양 물량 격차가 클 수 있어

- ◎ **(수도권)** 4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11.9% 감소한 7,688호로 집계돼 2023년 초부터 3개월간 이어졌던 물량 증가세 종료
 - 다만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3개월 동안의 물량 증가를 시장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없는 것은, 분양 물량의 증가와는 별개로 월간 분양 물량 자체가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
 - 이는 전년 누적 대비 61.6% 감소한 올해 4월까지의 누적 분양 물량 수치에서도 엿볼 수 있어
- ◎ **(지방)** 지방에서도 3월 분양 물량이 2023년 들어 가장 많았던 데 비해 4월 분양 물량은 이보다 27.1% 감소한 4,488호 기록
 -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6.6% 감소한 것이며, 전년 누적 대비 올해 누적 물량 역시 68.2% 감소
 - 지방 미분양 문제가 연일 언론에 노출되며 분양 시장이 3월보다 소극적인 대응을 했던 것으로 분석
- ◎ **(분양계획)** 5월 분양 계획은 총 2.7만 호로 예상돼 전월 대비 3.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 ◎ **(입주계획)** 향후 6개월('23년 5월~10월) 전국 입주 물량은 약 23.3만 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유형별로는 분양 17.4만 호, 조합 2.7만 호, 임대 3.2만 호 등으로 구성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



※ 자료 :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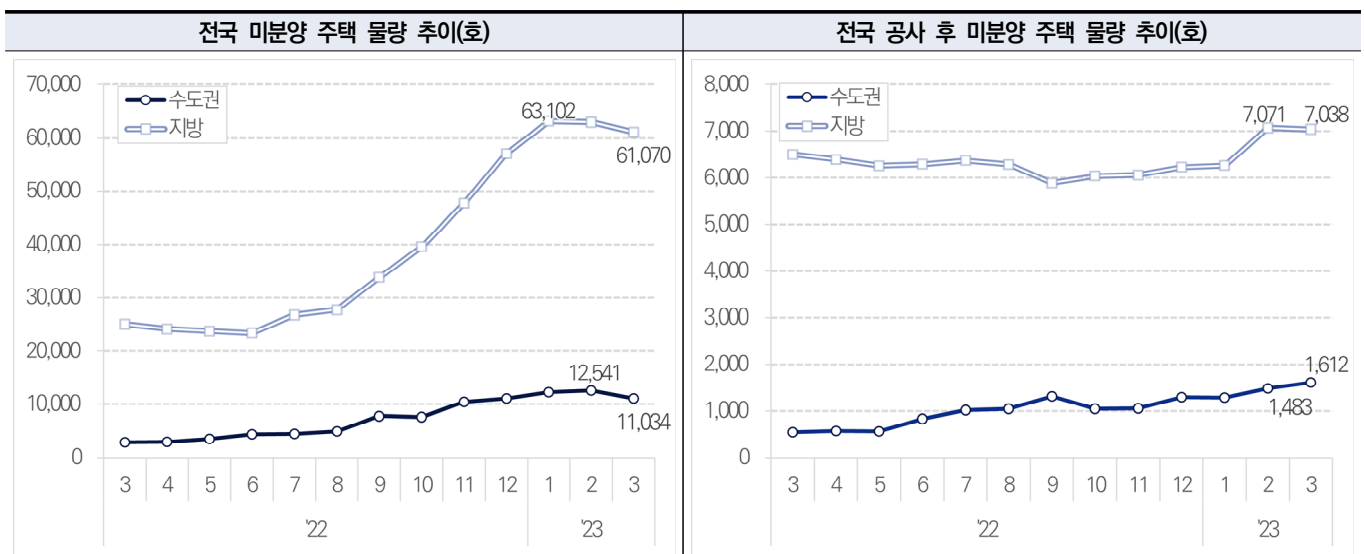
공급

3_미분양

-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7.2만 호로 MoM 4.4% 감소... 11개월 만에 나타난 첫 감소이자 1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 기록
- 반면 공사 후 미분양 주택은 8,650호로 전월 대비 1.1% 늘어나 미분양 주택 수 감소와 대비

- ◎ **(미분양)** 3월 들어 수도권 미분양 MoM 12.0% 감소, 지방 미분양 MoM 2.9% 감소 등 전국적으로 미분양 감소세 나타내(인천 제외)
 - 전국 미분양 재고 7만 2,104호로 2023년 들어 가장 적은 재고량 보유
 -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 감소가 뚜렷했던 지역은 서울로, 전월 대비 4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 전국적인 미분양 감소세 가운데 인천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MoM 13.0%(411호) 증가
 - 다만 지난 5년래 나타난 저점인 1만 3,842호에 비하면 5배 이상 많은 재고 유지 중
- ◎ **(공사 후 미분양)** 3월 전국 공사 후 미분양 주택은 8,650호로 집계돼 MoM 1.1% 증가
 - 다만 2월 공사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13.4% 증가한 것과 비교한다면 증가 속도가 현저히 감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상이 상이한데, 지방에서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던 반면 수도권에서는 전월 대비 8.7% 증가
 - 상당 기간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이어졌던 만큼 당분간 공사 후 미분양의 증가세도 쉽게 꺾이지는 않을 전망... 단기적인 감소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증가세 유지될 듯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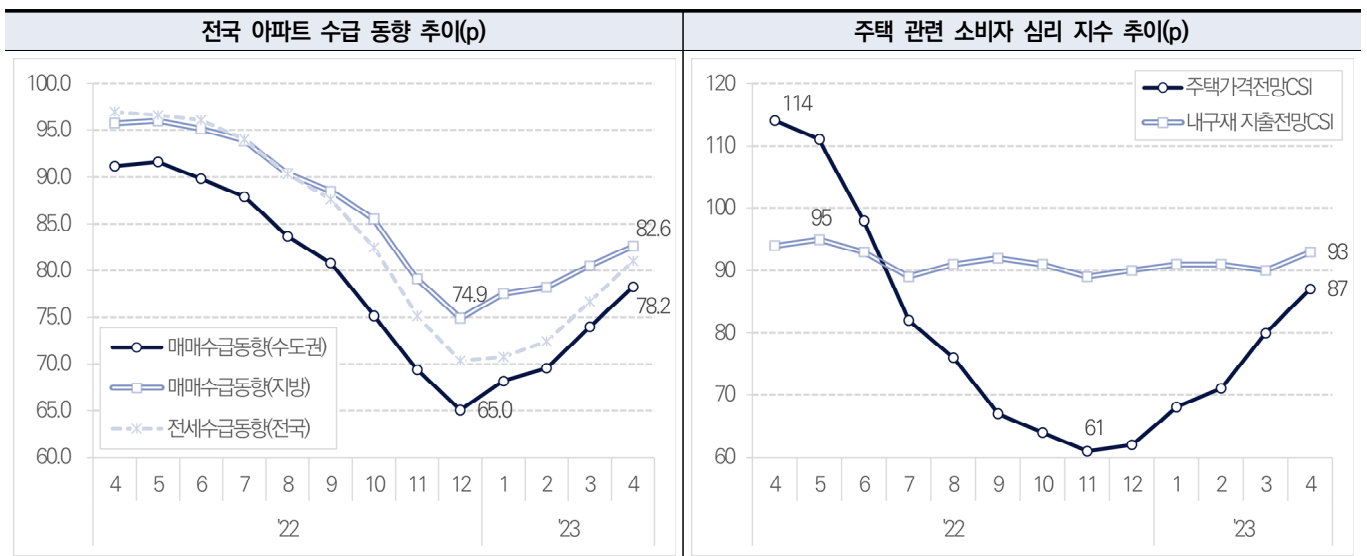
※ 자료 : 국토교통부

수요

- 세종시, 전국에서 매수 수요 가장 높아 수급지수 99.2 기록하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 이뤄
-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지수는 5개월째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하락 전망 우세

- ◎ **(수급동향)**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은 지난해 말 65.0으로 집계돼 직전 저점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8.2로 전월 대비 4.2p 상승했고 지방이 2.1p 상승한 82.6 수준을 나타내 수도권이 지방 대비 수요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관측
 - 전국에서 가장 수급 지수가 높은 곳은 세종시(99.2p)로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 이뤄
 -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세 수급 동향 지수는 전년 말보다 13.2p 상승한 78.2p를 기록
- ◎ **(소비자심리)** 수급 동향과 유사하게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은 '22년 말경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5개월째 회복해 80p로 집계
 - 지난 '22년 11월의 주택가격전망 CSI(61p)는 2008년 소비자동향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절한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 3월 현재 수치인 80p는 과거 2008년~2009년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해해야 함.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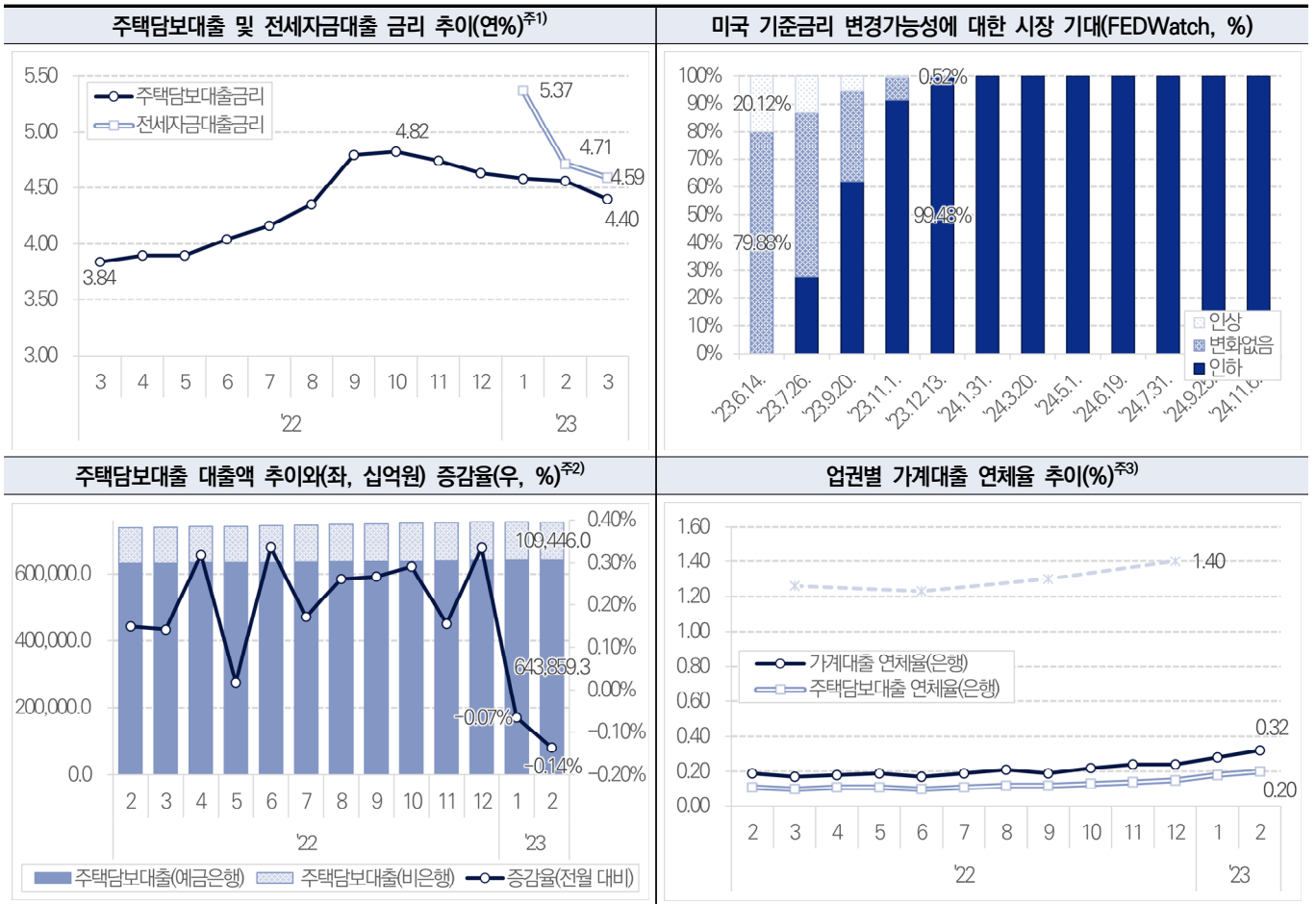
※ 주 :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

※ 자료 :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금융

- (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속 하락 중이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커져
 - 두 상품 중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하락 폭이 더욱 큰 편이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상 상품(아파트 혹은 비아파트)에 따라 금리의 차이 및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지난 5월 3일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시장 전망대로 금리가 0.25%p 인상됐으며 '23.9.20.에 개최될 FOMC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60% 초과
- (대출액 및 연체율 추이) 주택담보대출액의 감소세가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2월 들어 감소폭은 더 커짐. 반면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빨라 금융 안정 차원에서 검토 필요

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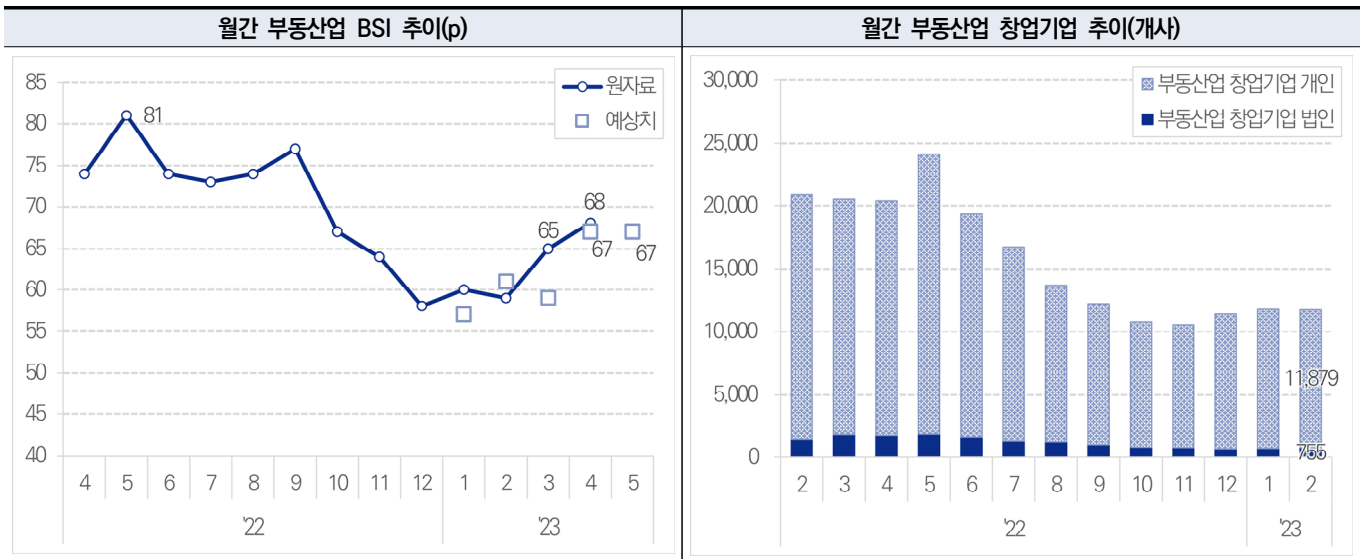
※ 주1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 자료의 중위값임.
 ※ 주2 :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같음.
 ※ 주3 :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 임의로 분기 말(3·6·9·12월)에 입력하였음.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위원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부동산산업³⁾

- ◎ (부동산업 BSI) '23년 4월 부동산업의 업황 기준 BSI는 68p로 집계돼 MoM 3p 상승했는데, 이는 전월 예상치인 67p와 유사한 수준
 - 부동산 가격 하락이 1년여 동안 이어졌던 '22년 10월 당시 BSI가 67p로 금월과 유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저점(22.12.)인 58p 대비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 전년 동월(74p)과 비교해보더라도 6p(8.1%) 낮아 경기 개선을 속단하기 쉽지 않아
 - 5월 지수는 3월에 예상한 4월 지수와 동일하게 67로 예상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 ◎ (부동산업 창업기업 수) '23년 1월 현재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1만 1,837개사로 MoM 42개사(0.4%) 감소, YoY 9,006개사(43.2%) 감소
 - 전반적으로 창업기업의 수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개인의 전월 대비 창업기업이 92개 사 감소한 반면, 법인은 50개 사 증가
 - 전년 동월 창업기업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법인 699개 사, 개인 8,307개 사 적어
 - 정부에서 법인 사업자에 가해왔던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창업 추이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중소기업부

3) 본 고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L.부동산업(68)'로 정의함.

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

항 목	변화율 · 변화량					최신 집계치 ^{주1)}	최근 5년 변화 추이	
	직전 5년		직전 3년		YoY			MoM
	고점	고점대비	고점	고점대비	-			-
거시경제	경기선행지수 (p)	109.6	-0.3%	109.6	-0.3%	1.5%	0.0%	109.3
		93.8	16.5%	98.5	11.0%			
	소비자물가지수 (p)	110.8	0.0%	110.8	0.0%	3.7%	0.2%	110.8
		98.6	12.4%	99.4	11.4%			
가격지수	수도권 아파트 매매 (p)	480.4	-6.7%	480.4	-6.7%	-6.7%	-0.3%	448.1
		277.7	61.3%	348.0	28.8%			
	지방 아파트 매매 (p)	333.7	-4.6%	333.7	-4.6%	-4.5%	-0.3%	318.5
		239.5	33.0%	254.0	25.4%			
거래량	수도권 주택 매매 (건)	75,725	-70.0%	75,725	-70.0%	13.0%	31.8%	22,722
		10,299	120.6%	10,299	120.6%			
	지방 주택 매매 (건)	77,078	-61.6%	77,078	-61.6%	-11.2%	23.6%	29,611
		15,462	91.5%	15,462	91.5%			
공급	전국 아파트 분양 (호)	64,264	-81.1%	64,264	-81.1%	-59.8%	-18.2%	12,176
		7,020	73.4%	8,839	37.8%			
	전국 아파트 미분양 (호)	75,438	-4.4%	75,438	-4.4%	198.7%	0.1%	72,104
		13,842	420.9%	13,842	420.9%			
금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	4.82	-0.26%p	4.82	-0.26%p	0.56%p	-0.16%p	4.40
		2.39	2.17%p	2.39	2.17%p			
	주택담보대출잔액 (십억 원)	754,831.0	0.2%	754,831.0	0.2%	2.1%	-0.1%	753,305.3
		580,327.0	-23.0%	639,598.1	-15.1%			

※ 주1 :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
 ※ 주2 :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부동산114

약어표(가나다 順)

용 어	내 용	비 고
BSI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CSI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MoM	전월 대비 변화율(Month-on-Month)	
YoY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Year-on-Year)	
YTD	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Year-to-Date)	